

‘전기차 공포’ 확산... 광주시, 청사 지하에 주차 금지

오늘 차관급 전기차 화재대책회의 배터리제조사 공개·완충제 등 논의
광주시, 정부방침 맞춰 대응책 마련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도 청사 내 공용 전기차 주차 공간을 지상으로 옮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도 전기차 지상 주차 여부에 대한 논의 시작하는 등 전기차 지하 주차 금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 8월8일자 6면 보도>

광주시 서구는 전기차 화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광주 동구의회도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1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본청에서 운용 중인 공용 전기차를 모두 지상에 주차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시 공용 전기차는 모두 58대이며 14대는 청사 지하, 나머지 44대는 청사 지상 지정 주차구역에 이용해 왔다. 광주시는 특히 전기차 충전 시설 35기 가운데 지하에 설치된 4기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직원 개인 소유 전기차 현황도 파악해 지하 주차장 이용 금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내구연한(10년)이 지나거나 임박한 공용 전기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수리 또는 불용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전기차 관련 관계부처와 전문가 참여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13일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대책은 ‘전기차 분쇄’와 ‘충전기 등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로 나뉜다.

우선 논의되는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대자동차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기아도 이날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 7종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밝혔다.

다만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로 분류된다. 이는 점에, 수입차의 경우 통상문제 비화 우려 등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100% 충전’, 이른바 완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단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충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은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시행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자체가 줄어든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듈’ 장착 기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급속충전기엔 대부분 PLC 모듈이 장착돼있으나, 완속충전기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LC 모듈을 장착한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40만원 더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이 났을 때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지하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만 있는 곳이 많은 데다, 지상에서는 아예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곳도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적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2일 광주시 청사 지하 1층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주차공간이 주차 금지 조치에 따라 텅 비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 “전기차 화재·코로나19 확산 신속하게 대처”

9월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 발표
코로나19 백신 월 내 추가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기차 화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상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당부했다고 정

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날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내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전기차 안전 관리 관련

정부 대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질환의 위험성 자체는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치료제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확보 중으로, 이달 안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 지명

인권위원장 후보에 안창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김용현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민주 “묻지마 거부권”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면서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 방송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속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침해하는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 원내지도부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 기자회견에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언론을 탄압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